

韓國美術二千年展의 意義와 成果

國立中央博物館에서 開催中인 韓國美術二千年展은 우리 나라에서는 일찍이 없던 큰 企劃이었고 國內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古美術에 대한 一種의 부흥을 일으키고 理解와 愛着을 갖게 하는데 큰 貢獻을 하였다.

당초에 계획되었던 國外 콜렉션들로부터의 名品參與가 事情에 依해 중지된 것은 哀惜한 일이었으나 이번 展示品總數 五七二點中 二六八點이 松美術館、東垣美術館、湖巖콜렉션 등 國立博物館 以外의 國內蒐藏品들중에서 選品된 것이며 그 內容에 있어서 公私協力の 全國的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이 展示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거나 좀처럼 볼 수 없었던 名品들이 많이 出世한 것은 무엇보다도 意義가 컸다고 하겠다. 우리 韓國美術史學會가 이번 展示品중 各分野에서 重要한 新資料 幾箇를 골라 紹介文을 써서 韓國美術二千年展特輯號를 내는 것도 이러한 特別展示의 開催를 祝賀하고 그 意義를 評價、記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二千年展의 成果는 결국 出展된 美術品의 量과 質、그리고 그것들의 展示方法을 통한 教育的 效果와 出版物、매스컴을 통한 有敎適切한 宣傳과 記錄으로서의 廣布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于先 第一室의 彫刻·金屬工藝品(總 一三〇餘件)에 있어서는 國立博物館所藏의 重要佛像 등 外에 멀리 慶州에서 栢栗寺銅佛、石造菩薩立像 등을 運搬하여 왔고 個人所藏品중에서는 潤松美術館의 癸未銘佛、南宮鍊氏의 金洞如來坐像、金東鉉氏의 金銅彌勒半跏像、黃圭董氏의 金銅菩薩三尊立像、車明鎬氏의 金銅菩薩立像 등이 出品되어 佛敎彫刻의 變遷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石窟庵彫刻들이 빠진 것은 遺憾이었고 實物 最高水準을 보여줬어야 했을 것이다. 金屬工藝로서는 金冠塚遺物들이 못나온 것이 遺憾이었는데 慶州側의 強力한 反對에 의하였다고는 하나 정말 名實相符한 二千年展을 하려했다면 國家的인 見地에서 서로 協力해서 金冠만은 올라왔어야 했을 것이다.

佛敎工藝品으로서는 李秉喆氏의 金銅大塔이 斷然 拔群이고 金潤氏의 大形銅香爐와 함께 高麗佛敎의 威力과 盛況을 눈으로 보는 듯 하였다. 權尙河氏의 金銅燭臺는 統一新羅時代 石窟古墳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展示로서 처음 世上에 알려진 寶物이다. 이 第一室을 通觀해서 몇 개의 櫥은 어딘지 混雜하고 中心이 없어 個個遺物의 價値를 돋보이게 못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작은 空間에 너무 많이 보이려는 欲心에서 그렇게 된 것이겠지만 櫥內陳列 點度가 좀 많았다는 것이 이번 展示 全般의 共通的 印象이었다.

第二室에는 三國時代、統一新羅時代의 土器과 高麗靑磁가 합해서 一八〇餘點 展示되어 있는데 中央에 자리 잡은 三國、新羅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東亞大學校의 馬頭飾角杯 一雙과 慶州博物館의 動物刻畫文長頸埴이었다. 그러나 이 櫥역시 散漫하면서 混雜하며 學術的인 價値를 가지면서 新羅土器의 美를 具備한 重要 新羅伽耶土器의 展觀으로서 좀 不足한 感이 있다. 堂堂한 新羅土器의 모습에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高麗靑磁에서는 潤松美術館의 鴛鴦形香爐蓋와 李秉喆氏의 辰砂蓮花文瓢形注子가 斷然 出色이었는데 優秀한 靑磁는 民間에서 찾아낸 더 나은 것 같아 생각 되었고 高麗靑磁의 精髓를 強力하게 擴寫 못한 感이 있다.

第三室에서 朝鮮王朝磁器 一五〇餘點이 展示되어 있는데 여기 展示에서의 큰 學的 收獲은 東國大學校의 弘治二年(一四八九) 銘靑華白磁松竹文壺、洪斗榮氏의 靑畫白磁鳥竹文壺를 비롯한 一五·六世紀의 初期靑畫白磁들이었다. 한편 朴秉來氏의 靑華白磁草虫鳥竹文壺、李秉喆氏의 靑華白磁菊蘭文水盤、朴秉來·李秉喆氏 등의 筆筒·硯滴壺、그리고 白磁로서 金潤氏의 大壺、尹章燮氏의 蓋盒 등은 이번 展示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名品들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번 展示중에서 展示自體가 가장 잘 된 것이 바로 이 白磁槷이기도 하였다. 粉靑磁器로는 그 感覺에서 또 意表를 찌르는 洗練된 美에서 黃圭董氏의 魚文瓶이 가장 뛰어났었고 이번 展示를 통해 나타난 寶物中の 寶物이라 하겠다. 또 朴坡亨氏의 刻畫雙魚文瓶은 이 式 粉靑磁器의 代表的인 作品이라 하겠고, 南宮鍊氏의 正統五年(一四四〇) 銘魚文大盤은 製作地와 製作年代가 長文의 銘文으로써 밝혀지는 學術的 價 值가 莫大한 象嵌粉靑磁器로서 貴重하였다. 이 朝鮮磁器室을 通觀해서 느끼는 것은 靑白磁가 좀 더 좋은 것이 있을터인데 하는 印象이며 準備期間 的 不足에 따른 對象選擇의 制限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마지막 第四室에는 朝鮮時代繪畫 九〇點이 展示되었다. 國立中央博物館은 이번 展示에 앞서 作年年末에 韓國名畫 近五百年展을 가진 바 있어 有名한 作品이라도 그때 出陳되었던 것은 再展示를 避하는 方針을 세웠던 것으로 안다. 그래서 새로운 名畫들을 發掘하는 努力을 하였으나 結果에 있어서는 前展示보다 質이 떨어지고 말았다. 다만 새로 나온 것으로서 尹泳善氏의 恭齋自畫像과 許煦氏의 申漢枰作 花鳥圖는 모두 우리 畫壇의 實力을 誇示한 傑作들이다. 이번 繪畫展示에서는 일부러 사람을 日本까지 보내 天理大學의 安堅作 夢遊桃源圖、淺草寺의 慧虛作 楊柳觀音圖같은 巨作을 빌려 오려고까지 努力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姑捨하고 한 때 文化財海外展示를 通해 國外에까지 널리 알려진 謙齋의 金剛全圖、仁旺齋色圖같은 國內에 있는 傑作들이 나오지 못한 것은 큰 遺憾이었다.

이번 二千年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企劃이 國立中央博物館으로서는 未曾有의 野心的 事業이었고 近來活潑해진 博物館의 展示事業에 새로운 契機를 만들어 주는 매우 意義 있는 일이었다. 또 이 展示가 當初에 期待했드시 이것을 通한 國民에의 古美術品에 대한 興味喚起와 理解增進이 크게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고 勸誘를 맞아 殺到하는 外國觀光客들에게 우리 古美術을 誇示하는 좋은 效果를 올렸다. 특히 圖錄이 出刊되어 우리 古美術 入門書로서 또 學界에 대한 새로운 資料集으로서 많은 部數가 販賣되고 있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고 우리나라의 博物館事業도 이제 軌道에 오른 것 같다. 그러나 이 大展示는 그 意圖의 大에 比해서 內容이 뛰파르지 못했고 이 方面에 素養없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되 조금 關心과 知識을 가진 人士들에게는 이것이 名實共히 우리 美術二千年展이오 하고 내놓기에는 좀 難點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좀 더 準備期間을 두고 정말 國內외의 名品들을 一堂에 모아 그 嚴選된 名品들 하나 하나가 모두 제 빛을 낼 수 있는 熟考된 展示方法을 통하고 또 系統 있고 明快하고 教育的이며 親切한 說明을 곁들여서 國民앞에 披露했어야 했을 것이다.

國立中央博物館의 여러가지 어려운 事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筆者에게는 하지만 정말 二千年展이라고 내건 大展示로서는 內容面에서도 보다 眞摯한 努力을 해야 했을 것이다. 事實은 筆者 自身은 選定委員의 하나여서 이 展示의 成果에 대해서는 一種의 共同責任을 져야 할 立場에 있지만 物件을 앞에 놓은 選定委員會는 한번 밖에 열리지 못했고 準備期間의 太不足을 스스로 痛感하지 않을 수 없다.

國立中央博物館은 앞으로 이러한 大展示를 활발히 계속하되 充分한 準備期間을 두고 國內외에 널리 公募해서 嚴正하고 慎重한 審査를 거쳐 누구나 感嘆하는 偉大한 展示들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 바이다.